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근본으로 돌아가라

학승이 물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지만, 빛을 따라가면 높은 뜻을 잃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겠네.”
학승이 말했다.
“화상이시여, 제발 말씀해 주소서.”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거야.”

問 歸根得旨隨照失宗時如何 師云 老僧不答者話 云請和尚答話 師云 合與麼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근본을 잃어버리고 곁에 나타난 알팍한 빛에 따라가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곧 붓다임을 안다면 어찌 사람을 해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났겠는가. 만약 종교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어찌 신에게 기도하는 따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겠는가. 평등을 안다면 어찌 속속을 구분할 것이며, 진리가 무엇인가 안다면 어찌 불법이 어렵다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선성이 본분을 잃고, 정치인이 탐욕으로 물들고, 경제인이 독선적이고, 노동자가 힘으로 전복하려 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희롱하는 것, 있는 자의 횡포 등이 다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사람들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 각자 본분을 지키면

세상이 어찌 어지럽겠는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유혹하는 조그마한 빛, 즉 시기, 질투, 분노, 욕심, 박절, 쟁투, 미움, 시비 등에 끌려가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조주 선사라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問 如何是不思慮 師云 快速快道

생각할 수 없는 곳은 근원이다. 만 가지가 나온 곳, 세계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 곳,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 집, 꽃, 열매, 각종 범죄 등이 나온 곳이 근원이다. 근원은 세상을 만들지만 근원은 이름이 없고 형체가 없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곳은 어디인가?
선사가 갑자기 독자의 맥살을 잡고 빨리 말하라고 다 그친다면, 그때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바로 그때 선사가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인지 잘 착안해보라.

학승이 물었다.
“만리(萬里)동안에 여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선원(禪院)에 유숙한다.”

問 萬里無店時如何 師云 禪院禪宿

본 〈조주록〉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학인들이 물었던 것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 여러 상황에 대한 조주 선사의 답변을 보면서 한 시대를 살다가 고승 대덕의 인생관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만리 동안에 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몸이 편히 쉬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리 사이에 여관이 없어도 산중에 선원(禪院)은 있다. 여관이 없으면 선원에 유숙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다. 진정한 선사는 정처(定處)가 없다. 여관이 없으면 선원에서 유숙하고, 선원도 없으면 나무 밑에서 유숙한다. 나무도 없으면 들뜬에서 유숙한다. 인연이 다하면 떠나고 인연이 남았으면 더 머문다.
몸을 유숙하는 것만 그러하지 않다. 마음도 그렇다. 사랑에 머물지 않고 미움에도 머물지 않는다. 알팍한 지식에도 머물지 않고 반야에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에도 머물지 않고 부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선사는 늘 평안하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선사의 정신이다. 목적이 달성되어도 평상시와 똑같이 답답한 것이 선사의 마음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인간을 비천하고 귀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행위다

〈숫타니파타(經集)〉

부처님 당시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불렀던 것일까? 그 호칭 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업설자(業說者, karmavādin)” 업을 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업을, 다시 말해서 행위를 강조하셨으면, “저 양반은 맨날 업만 말하는 사람이야”라는 소리를 들으셨을까?
하기는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인도 종교인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도 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부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지혜를 중시했던 것이다. 우주자연의 본질, 즉 삼라만상의 본질을 브라만(梵, brahman)이라 하고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을 아트만(我, ātman)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곧 브라만을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지해라 하였다. 바라문교에서는 이러한 해탈과 지해가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곧 브라만을, 내가 곧 아트만을” 배우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인간은 고귀한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브라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 스스로를 브라만이라 불렀다. 하늘에도 브라만이 있고, 땅에도 브라만이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당시의 가르침을 펴시는 환경이 그랬다. 그날도 부처님께서 바라드바자라는 이름의 브라만을 만났다. 부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브라만 바라드바자는 외쳤다. “거기서 있거라. 이 초라한 놈아, 더 이상 오지 말고 거기서 있거라. 이 비천한 놈아, 거기서 있거라.”
그의 눈에는 걸식자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에게 그런 부처님을 집 안에 들이는 것은 ‘부정(不淨)하다’ 일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셨던 것일까? “바라드바자여, 과연 누가 비천한 사람이며, 또 사람이 비천하게 되는 조

건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역습에 주춤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이제 입장이 역전되었다. 브라만 바라드바자는, 누가 ‘비천한 사람’ 인지를 알려달라고 청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고구정령(苦口丁寧) 친절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자기를 치켜세우고 남을 헐뜯으며 / 자만심으로 목이 뻗뻗해진 사람, / 이런 사람을 일컬어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석지현 옮김, 〈숫타니파타〉, 민족사, 40쪽)
이러한 일반적인 덕목들을 열거하신다. 그런 뒤에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명언을 토해 놓으신다. 앞의



그림 · 박구원

일반적 덕목들을 총괄적으로 맺음하는 차원에서이다. “출신 성분에 의해서 사람이 천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 또는 브라만의 횡통에서 태어났다 해서 /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인간은 모두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 얼마든지 ‘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위의 책, 41쪽)
이 말씀은 인도의 고질적 신분제인 카스트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 옮겨서 있거라. 이 비천한 놈아, 거기서 있거라.”
그의 눈에는 걸식자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 초라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에게 그런 부처님을 집 안에 들이는 것은 ‘부정(不淨)하다’ 일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셨던 것일까? “바라드바자여, 과연 누가 비천한 사람이며, 또 사람이 비천하게 되는 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6>

팔정도-⑧ 정정(正定)

팔정도의 마지막인 정정(正定)은 고도의 정신수행과 가장 관련이 깊은 덕목이다. 부처님은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를 ‘고통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닌[非苦非樂] 중도행(中道行)’이라 했고,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팔정도라고 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正見)과 정정(正定)인데 그 이유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의 출발점과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정정은 흔히 ‘바른 정신통일’로 번역된다. 즉 정(定)은 정신통일의 뜻을 갖고 있고, 다른 말로 삼매(三昧)라고 불린다. 불자라면 너무나도 귀에 익은 삼매가 바로 정(定)을 의미하는데, 이 정(定)과 삼매는 산스크리트어 삼아디(samādhi)를 번역한 말이다. 단지 정(定)은 삼아디를 의역한 것이고 삼매는 산스크리트어 삼아디의 발음만 차용해 번역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삼아디는 ‘조합시키는 것’, ‘결합시키는 것’, ‘무언가에 열중하거나 주위를 기울이는 행위’ 등의 의미가 포함된 말로, 여기서 발전해 ‘깊은 명상’, ‘정신을 집중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등의 뜻을 갖게 됐다. 이렇듯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보니 옛 경전 번역가들은 삼

바른 삼매의 네 가지 단계 사선정


아디를 정(定) 선정(禪定) 직정(寂定) 삼매(三昧) 삼마지(三摩地) 등 다양하게 번역했다. 따라서 정정(正定)의 ‘바른 정신통일’은 바꿔 말해 ‘바른 선정에 드는 것’ 혹은 ‘바른 삼매에 드는 것’ 등으로 이해 해야한다.
하지만 회사 업무에 집중할 때의 집중력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 할 때의 집중상태가 다르듯 선정(禪定)에 든 상태도 여러 종류와 단계가 있다. 불교는 이 부분을 ‘정학(定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방대한 수행체계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것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정정에서 말하는 바른 선정의 정의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초기 빨리 경전 및 한역(아함경(阿含經)), 그 밖에 대승 경전에서도 정정을 말할 때 공통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선정(四禪定)이다. 정신통일로 마음의 평정을 얻은 후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데, 사선정은 이러한 정신통일의 네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사선정의 첫 번째 단계를 초선(初禪)이라고 하는데, 선정에는 들었으나 아직 마음이 거칠고 미세한 작용이 남아있어, 보고 듣거나 추위와 더위 등의 인식이 일어나는 단계를 말한다. 이를 선정에 들어갔으나 ‘심(尋)과 사(伺)가 남아있

는 상태’라고 한다. 두 번째 단계 제2선(第二禪)은 마음에 거칠고[尋] 미세한 작용[伺]이 사라지고, 신근(信根)이 뿌리내려 정신통일이 한 단계 상승한 상태가 된다. 여기서 기쁨[喜]과 즐거움[樂]이 생겨난다. 선정이 깊어지면 고뇌가 점차 사라져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 단계가 제2선이다. 제2선의 경지가 더욱 깊어져 세 번째 제3선(第三禪)의 단계에 이르러 ‘기쁨’의 감정이 둔감해지고 사라지게 된다. 고뇌가 사라져 생긴 기쁨을 제2선의 단계에서 느꼈다면, 제3선에서는 고뇌가 사라진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경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을 느낄 필요도 없게 된다. 이 단계에서 마음은 안락(安樂)을 얻고 정념정지(正念正知)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4선(第四禪)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안락조차도 멀해 마음은 미동치 않는 부동정(不動定)의 상태가 되고, 마치 동면에 들어가 동물처럼 심신의 활동이 미세하게 작용하게 된다. 즉 생각, 감정, 분별심 등의 마음작용이 멸한 멸진정(滅盡定)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지만 사선정은 정정의 네 단계를 설명한 것일 뿐 이 또한 열반의 경지는 아니라고 하니 일반 범부는 정신수행 단계의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듯하다.

日 용곡대 불교학사 · 前 본지기자

해동 제일약사도량 동해약령사

해파스님의 원력과 약사여래의 가피로 불자님의 심신을 치유합니다. 도량의 맑은 기운과 자연에서의 섭생으로 아토피, 건선, 고질적 피부병은 물론 지쳐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 약령사 법당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맑은 물 동트는 동해시 두타산 자락에 편안히 자리잡은 약령사에서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소리와 파도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고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심신이 약하고 허해서 오는 마음의 병부터 온갖 세속의 고탈에 찌들어 뼈속까지 상처가 들어간 난치병에 이르기 까지 약사여래의 무구한 가피력으로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정성 더없는 발원으로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청정도량입니다.

- ①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③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④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령사 천연 초제 비누

불자님의 인연에 따라 약령사에서 직접 기도하면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령사 주지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강원 동해시 대구동 174-2 / 전화 033)521-5453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시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상품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들)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내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질리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능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